



조건 제 806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음력 2월 22일)

특별시 출범 '짜깁깁'...통합비용 지원 '머뭇'

정부 추경에 미반영...새 행정체제 가동 준비 차질 우려 시·도 177억, 교육청 120억...행안위·교육위 겨우 책정 피해는 시민 몫...안도걸 "필요예산 1800억 수용 요구"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 행정체제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가 미흡해 지역민들이 상당 기간 혼란과 불편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2·8·19면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이고 청사 재배치, 통합의회 구축,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 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범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추경 성격에는 (통합지원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일단 지원안은 마련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8일 시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1800억원 규모의 통합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통합 소요 예산' 177억3800만원 (행안위)과 120억6000만원

(교육위)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교육청이 행정통합 소요 비용으로 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양 시도가 576억원, 광주·전남 교육청이 120억 6000만원이다. 국회 행안위와 교육위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해도 예산이 건의한 예산보다 398억6200만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안 의원이 시도의 의견을 최종 종합해 정부에 요구한 예산 1800억원에 비교하면 예산 부족 규모는 1500억원에 남는다.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 통합 시 출범 직후부터 행정 시스템 마비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와 처리는 물론 행정 절차결재 서비스도 중단되며, 지방재정시스템이 마비 돼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당장 시도 통합으로 인해 지적도나 각 자구에 대한 공식기록장부나 공공시설 표지체계도 바뀌게 되지만 바뀐 지적도와 표지체계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지적도 관계정보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각종 개발계획, 인·허가 등 토지소유권 분쟁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폐지된 지자체명'의 공인을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포털 상의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 민간 공간정보 서비스와 실제 도로표지판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피하기 어렵고, 바뀐 안내판과 관공서 표지판이 제때 정비되지 않아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3개 청사 재배치와 통합의회 가동을 위한 예산도 당장 지원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사무 공간 정비와 새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면서 계속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노란 유채꽃 물결 속으로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천변 일원에 활짝핀 노란 유채꽃 사이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8명 후보 확정

목포 강성희·나주 윤병태·광양 정인화
영암 우승희·강진 차영수·진도 이재각
해남 명현관·신안 박우량, 과반 본선행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이 8개 지역의 후보 확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8개 지역 후보를 확정했다. 나

머지 지역은 결선 또는 본경선으로 이어지며 경쟁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2인 경선이 치러진 목포·나주·광양·영암·강진·진도와 다자 경선 지역 일부다. 목포는 강성희, 나주는 윤병태, 광양은 정인화, 영암은 우승희, 강진은 차영수, 진도는 이재각 후보가 각각 공전을 받았다. 3인 경

선이 진행된 해남에서는 명현관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로 후보로 확정됐고, 5인 경선이 치러진 신안에서도 박우량 예비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결선으로 이어진 지역도 적지 않다. 장흥은 팽태수·김성, 화순은 임지락·윤영민, 담양은 박종원·이규현 예비후보 간 맞대결이 예정됐다. 4인 경선이 치러진 장성 역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한중·소영호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으로 압축된 지역은 여수·완도·무안이다. 7명이 경쟁한 여수에서는 김영규·백인숙·서영하·정기명 등 4명

이 본경선에 올랐고, 완도는 신의준·우홍성·지영애 등 3명, 무안은 김산·나광국·이혜지·최옥수 등 4명이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도 남아 있다. 순천·곡성·구례·함평·영광·고흥·보성 등 7곳은 8일부터 9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기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10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단계별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며 "경선 이후에는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본선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9~10일 최대 120mm '폭우'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당 기간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릴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50~100mm 수준이며,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풍도 동반된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는 순간풍속 55km/h (15%) 안팎, 산지에서는 70km/h (20%) 안팎의 바람이 불 것이다. 9일 오전부터 전남 서해안, 오후부터 남해안에는 순간풍속 70km/h (20%) 이상, 산지에서는 90km/h (25%)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1.0~3.5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최저 4~9도, 최고 16~20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7~18도, 10일은 아침 11~15도, 낮 13~20도로 예보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 화순 봄꽃 축제 (夜行) 2026.4.17.(금) — 4.26.(일) 15:00 — 21:00 (10일간) / 화순읍 꽃장길 및 남산공원 일원